

광주 실업률 석달째 전국 최고

7월중 4.5% ... 1년4개월만에 가장 높아

불황 여파 인력감축 등 고용부진 깊어져

지난달 광주지역의 실업률이 1년4개월 만에 최고로 치솟는 등 불황으로 인한 고용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광주는 실업률이 3개월째 전국 최고 수준을 이어간 가운데 전국의 취업자 증가 수도 15만명선에 그치는 등 전국적인 고용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실업률은 4.5%에 달했다. 이는 2006년 4월(4.5%)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전국 평균(3.1%)을 크게 웃돌고 있다.

또 광주는 실업률이 지난 5월 4.0%로 상승한 이후 3개월째 전국 최고 수

준을 지속할 만큼 고용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전(4.0%) ▲인천(3.9%) ▲서울(3.8%) ▲부산(3.6%) 등의 순이었다.

광주의 실업률 급등은 경기침체와 원자재값 폭등 등의 여파로 지역 제조업 및 건설업계의 인력 감축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는 또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46만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7월에 비해 1천명 증가한 것으로, 고용시장 위축에 따른 취업포기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불황으로 인한 고용시장 약화는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지난달 취업



자 증가폭이 또다시 15만명 선에 그치는 등 고용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달 전국의 취업자는 2천390만 3천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15만3천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7월보다 15만3천명 줄어든 것을 비롯, 농업·임업(-4만3천명), 제조업(-2만9천명), 건설업(-2만6천명) 등의 고용부진이 심화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내 고용시장 부진은 내수 둔화에 따른 경기하강의 영향이 크다"며 "제조업의 고용없는 성장 속에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주도했던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도 고용침체에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만명을 밑돌고 있다.

이같은 증가폭은 정부가 지난달에 하향조정한 취업자 증가폭(20만명)에도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의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15~19세의 취업자 수가 2만1천명 감소한 가운데 20~29세와 30~39세가 각각 11만8천명, 2만9천명 줄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취업자가 4만4천명 줄어든 것을 비롯, 농업·임업(-4만3천명), 제조업(-2만9천명), 건설업(-2만6천명) 등의 고용부진이 심화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내 고용시장 부진은 내수 둔화에 따른 경기하강의 영향이 크다"며 "제조업의 고용없는 성장 속에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주도했던 서비스업과 건설업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도 고용침체에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유값 석달만에 1,700원대로

광주·전남 주유소 평균 판매가 ... 휘발유값도 이번주 중 내릴듯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가격이 3개월 만에 1,700원대로 내려섰다.

13일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주유소 9천700여 곳의 경유 평균값은 전날보다 1,700원 이하로 1천 799.37원을 기록했다.

경유값은 5월 셋째주 1,785.23원을 기록한 이후 3개월 만에 1,700원대로 떨어졌다. 휘발유 전국 평균가격도 전날에 비해 1,700원 이하로 1,700.12원을 기록해 1천 7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휘발유 가격은 5월 둘째주(1,722.22원) 이후 가장 낮았다.

광주지역의 경우 평균값은 1,769.8원으로, 전남지역 1,781.2원보다 11.4원 낮았다.

그러나 전남지역의 경우 광양(1,822원), 보성(1,804원), 목포(1,803원), 구례(1,802원) 등 4개 시군이 1,800원대에 머물렀으며, 나주시는 1,706원으로 조만간 1,700원대까지 내려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5원 하락한 1,700.12원을 기록해 1천 7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휘발유 가격은 5월 둘째주(1,722.22원) 이후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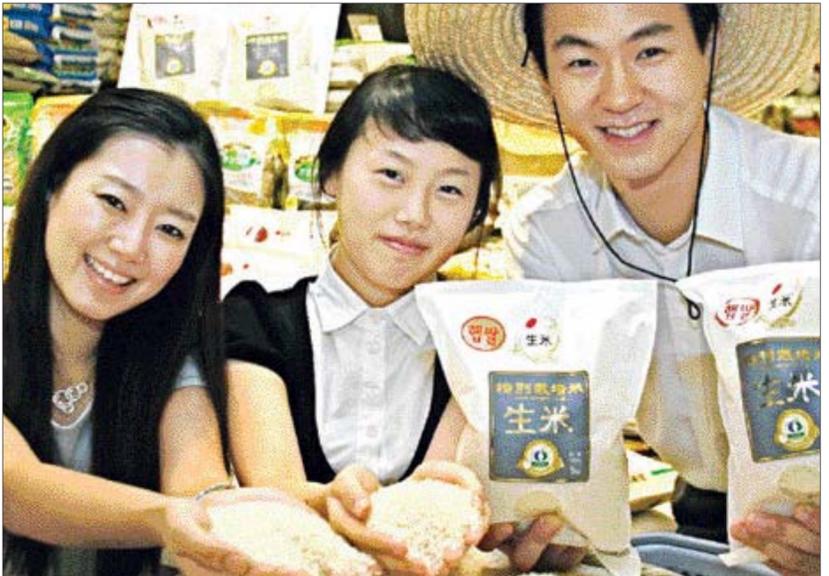
광주지역의 경우 평균값은 1,769.8원으로, 전남지역 1,781.2원보다 11.4원 낮았다.

그러나 전남지역의 경우 광양(1,822원), 보성(1,804원), 목포(1,803원), 구례(1,802원) 등 4개 시군이 1,800원대에 머물렀으며, 나주시는 1,706원으로 조만간 1,700원대까지 내려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정유사들이 석유대리점과 자영주유소에 판매한 가격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휘발유도 이번 주 중으로 1,700원대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7월 다섯째주 정유사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전 주에 비해 1,700원 이하로 1,706.15원을 기록했고 경유도 1,706.15원 이하로 1,706.15원으로 집계됐다.



보성 유기햅쌀 서울 시판

13일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은 노지에서 재배 후 수확한 전남 보성산 유기 햅쌀을 판매했다. 이 햅쌀은 비료나 해충약, 제초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법으로 재배해 안전하고, 영양가와 밥맛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1kg 8천100원.

아시아나 '세계 항공사 대상' 5개 부문 석권

아시아나항공은 영국 스카이트랙스가 발표하는 '2008 세계 항공사 대상'에서 5개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계 항공사 대상'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1개월에 걸쳐 95개국 1천500만명 이상의 승객을 대상으로 공황과 그라운드 서비스, 기내 서비스, 승무원 서비스 등 40개 항목을 평가했다.

최고 승무원, 최고 이코노미 클래스, 북아시아 최고 항공사, 아시아 최고 승무원, 북아시아 최고 승무원 등 5개 부문에서 1위에 올라 종합순위 5위를 차지했다. 종합 순위 1위에는 싱가포르 항공이 올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쏟았던 노력이 결실을 보게됐다"고 말했다.

추석 농산물 판로개척

농협 남품제안 설명회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덕수)는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판매확대와 수확기 판로개척을 위해 도매시장 경매사, 유통업체바이어 등 20여명을 초청해 전남농산물 남품 제안 설명회를 갖는다.

13~14일 제주지역에서 개최되는 설명회는 전남지역본부·나주·담양·장성·진도연합사업단이 참여, 추석 출하품목인 배·사과·토마토·메론 등 10여 품목에 대해 남품을 제안할

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농업 연합사업단이 취급하고 있는 산지농산물에 대한 특성과 유통시설, 생산현황, 출하가능량, 출하시기 등 바이어들이 필요로 하는 산지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 전남농산물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각 연합사업단별 바이어와 개별접촉을 통해 추석물량 확보와 하반기 남품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조영호 전남본부 경제본부장은 "특히 지역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햇빛, 365생, 대숲맑은, 해지연, 비단고 등 산지브랜드 홍보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박람회 전시장·경관 디자인 옷 입는다

조직위·KIDP 업무협정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전시장 및 주변 경관 등의 디자인 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위원장 장승우)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은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디자인 업무협정'에 관한 조인식을 가졌다.

해 전시 컨셉트와 시설물 등에 쓰이는 각종 박람회 관련 디자인의 경쟁력 극대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업무협정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조직위원회 측에 박람회 전시장 및 주변경관 특화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연구개발과 자문을 할 예정이며, 두 기관은 박람회 디자인 관련 각종 자료와 정보를 교환함과 동시에 박람회 상징물 디자인 및 문화상품 개발 등에 대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추석특별자금 300억 지원

韓銀광주전남본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박현덕)가 지역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석 특별자금 지원에 나섰다.

13일 한은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반 추석 특별자금 지원은 18일부 터 다음달 12일까지 시중은행을 통해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이뤄진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 남구 '진월 2차 한국아델리움' 분양

한국건설은 광주시 남구 진월동에 '진월2차 한국아델리움' 아파트 127세대를 분양한다. (조감도) 이 아파트는 지하1층, 지상23층의 3개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 세대가 124㎡(37평) 규모로 공급된다.

광주 최초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로, 3.3㎡당 분양가가 650만원선에 책정돼 주변 시세에

비해 200만원 가량 저렴하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단지 인근에 진월초, 동성중·고, 과학고, 대광여고, 대성여중·고, 문성중·고, 광주대 등 우수명문 학교가 형성돼 있으며, 제2 순환도로, 휴덕IC, 용산IC, 소태IC 등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금당산 등산로와 연결된 친환경 단지로 조성되며, 필로티·탑상형



설계와 함께 첨단 홈네트워크시스템 등이 갖춰진다.

건본주택은 광주 신세계백화점 건너편에 있으며, 14일 오전 10시 오픈 예정이다. 문의 1577-8733.

조이 여행사

여행사

254-3322

359,000

389,000

419,000

469,000

299,000

일본 골프 - 부산 동구

카펠리아 3박 4일 (45H)

549,000

699,000

1,090,000

일본 에니온 - 부산 동구

카펠리아 4박 5일

1,090,000

일본 배낭 여행 상품가

4일

469,000

4일

679,000

5일

774,000

3일

289,000